

# 70년대의 건축

## 후미히코 마끼

후미히코 마끼는 일본의 제 3 세대인 소위 word-maker generation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크렌브룩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한때 와싱턴대학 건축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SOM과 셀트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일본에 돌아와서 한동안은 겐조 당계와 일했다. 1960년 메타볼리즘이 창설될 때는 오타카와 함께 유명한 group-form의 개념과 형식을 추구했으며 나고야대학의 도요다강당을 시작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작품 활동 중 괄목할 만한 것은 기능공간의 유동적인 시스템과 프레임워크를 추구한 릿쇼대학이다. 실지보다는 말이 더 그럴듯한 word-maker generation 답게 이론체계는 정연하나 작품들은 아직은 설명적이다. 이 글은 신건축 금년 1월호 특집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이다.

60년대는 진것 같으면서 짧은 10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일본의 건축가들은 세계 디자인 회의의 준비에 바빴는데, 그런것도 어느덧 어제의 일과 같이 생각된다. 루돌프, 칸, 스미손 부처, 아스킨, 야마사키 등의 건축가들이 일당에 모이고 또 개별로 활발한 의견의 교류가 있었다. 당시의 주역은 현재 아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10년의 세월은 주역의 의미를 많이 변하게 했다. 현대의 건축가들은 벌써 그들의 일작일작에 주춤하지 않게 되었다. 라이트, 미-스, 그로피우스, 그리고 꼴호뷔제와 근대 건축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무대에서 한 사람씩 떠나감과 같이, 우리들은 지금 큰 공백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다. 우상으로서의 건축가가 접하고 있던 무게를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동시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공백을 메꿀 충동이 생긴다. 현대의 건축의 특질은 목적의 다층화, 다양화 같이 그의 존재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한스·홀라인은 《건축이란 현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건축이고 또한 모든 사람은 건축가이다》라고 선언했다(1968년 BAU지) 일견, 최대의 자유를 획득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현대 건축은, 실은 이 자유 때문에 건축가의 의식구조 안에 큰 불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수면에 던져진 돌의 파문과 같이 차차 그 넓이는 소멸해 가는 과정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영역의 무한의 확대가 허락되면 허락 될수록, 일방에 있어서 영역의 설정이 진실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가 어느 건축을 디자인으로 해서 “오퍼레이트”해 가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데의 설정이 문제다. 말하자면 현대에 있어서는, 폐절의 건축도, 영원한 건축도 같이 가능성으로서 허락되고있다. 그러나, 만일폐절의 건축의 논리가 조립 된다고 하면, 논리의 설

정과 오퍼레이션이 허락되는 영역이 대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영역의 결정은 사고의 토양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역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얻는 건축가의 가능성은 더욱 더욱 적어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결국 영역의 설정의 방기상에서의 자유의 획득 밖에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미 어떤 종류의 건축에 있어서의 생각하는 것이 온갖 목적에 대해서 가능하고, 뜻이 있다는 가설을 믿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mega structure는, 60년대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popula한 테마였다. 도시의 고밀도화, 기술의 진보는 일견 이러한 테마에 충분한 객관성 타협성을 주고 있는듯이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how big에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비로서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고밀도화된 도시에 있어서 행동적인 사람이 요구하는 공간은 구태어 고도로 웨라락키-화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도리어 꺼꾸로, 간단한 콜렉션을 가진 보다 유연하고 루-즈한 결합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간이 필요하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논리적으로는 다수의지의 참가와 서로 부딪히는 것이 가속적으로 증대하고, 유효한 방법은 반대로 건축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가, 확율, invisibility, 폐절이 비 건축적인 인자로서 등장한다. 알렉산더는 이 비 건축적인 것을 공간에 관련시키려고 하고 아-키그람은 그곳을 빠져 나간 극한을 깊이 보려고 한다. 확대한 영역에 있어서 건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소위 건축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현대는 동시에 영역의 한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백로드를 안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관계를 환경과 형태와 공간과 재료 안에서 찾아보기 시작하려고 한다. 무-어와 벤츄-리는 일견 eclectic라고도 생각되는 형태적인 모순을 그대로 밖에 노출하는 것으로 해서 반대로 그러한 어프로-치가 성립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홀라인의 로망도, 스타링-링의 시도, 지극히 엄격한 부분의 집적 위에 만들어져 간다. 홀라인의 말하는 누구나가 건축가적인 가능성은 반대로 더욱 엄하게 건축가로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현실의

행위 속에서 정해 버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자격 시험을 만들어 두고, 입문 후에는 엄격한 선정을 하는 방법에 비교할 수가 있겠다. 최대의 자유와 최대의 구속은 언제나 표리에 존재하는 것이다.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자유스러운 발상과 의도의 단계에서 건축의 가능성은 무수히 있는 것이 암시돼 있다. 따라서 적은 운동은 무한히 전개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왕의 주역이 연출한 운동과는 내용적으로 지극히 다른 것이 되는데 틀림없다. 도리혀 그것은 주역이 존재하지 않는 무대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자유이고 동시에 엄격한 의식의 세계가 어떠한 엄매인 10년간을 만들어 가는가는 도저히 알수 없다. 무수한 실이 몇개 인가의 명확한 끈에 의해서 뭉치는가, 또는 무수한 실 그대로 균생해 가는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적어도 출발점에 있어서 지극히 자유인 것은 우리들을 optimist로 해서, 일방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실현의 과정에 있어서 극복하고, 내포해 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의 다난함, 방법의 엄밀함에 관한 한 pessimistic한 미래인 것이 아닐까.